

4월 사양관리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기광석, 당창권



방역 및 위생관리

황사 접촉 최소화, 끝난 후엔 수세 및 소독 필요

4월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시기이므로 건강과 방역에 신경을 써야한다. 황사 예보시 가축은 축사 안에 머물도록 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축사내로 황사가 유입되는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출되어 있는 건초, 축사기구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두고, 황사가 끝난 후에는 축사 주변

과 내·외부를 깨끗이 수세하도록 하며, 소독을 실시해 황사를 통해 날아온 유해미생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2주간 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해가면서 사양관리를 한다. 특히 5월말까지는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므로 철저한 방역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매주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소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가축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모기를 매개로 한 아까바네, 유행열 등을 비롯하여 탄저·기종저와 호흡기 백신계획을 미리 잘 수립한다.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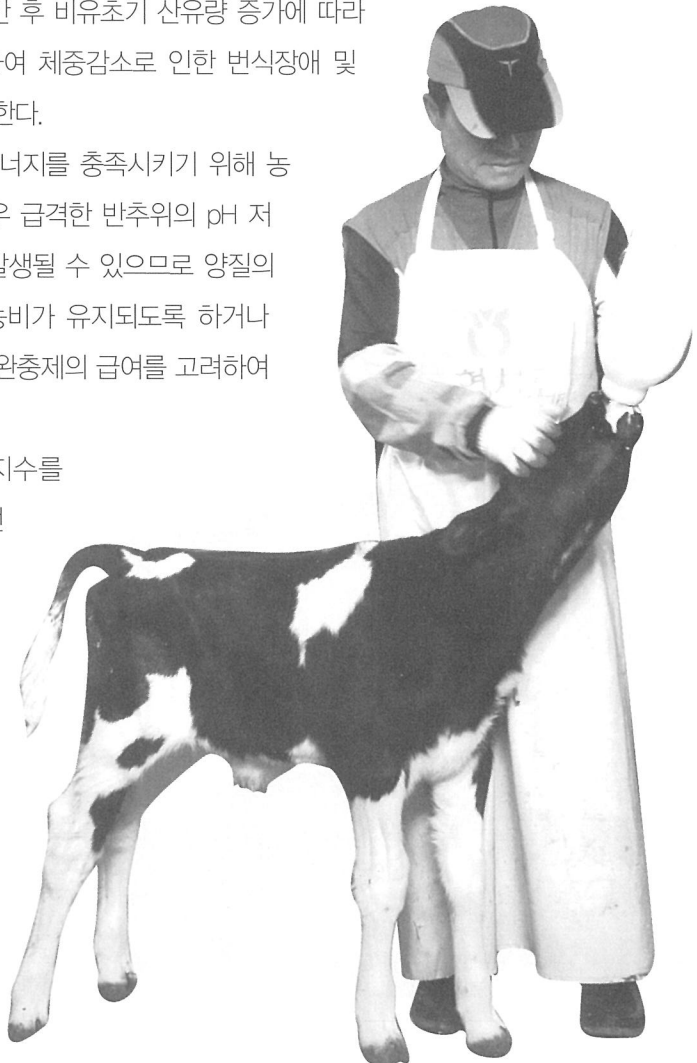
분만 많은 시기, 전환기 사양관리 철저히 해야

봄철은 분만이 많은 시기이므로 젖소의 전환기 사양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대사성 질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만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송아지와 분만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난 송아지는 생후 1~2주 사이에 전기 제각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각을 실시한다. 그리고 분만 후 비유초기 산유량 증가에 따라 부족한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체중감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유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 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급격한 반추위의 pH 저하로 산중독증과 다른 질병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해 적절하게 조농비가 유지되도록 하거나 반추위내 pH를 조절할 수 있는 완충제의 급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우의 신체충실지수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분만전 후에 다양한 대사성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사료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사양관리에서 중요하다. TMR 급여농가의 경우 외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료가 부패하기 쉬우므로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번식관리

발급장애, 유방염 등 장애요인별 적절한 관리 필요

젖소는 연중 육성, 분만, 수정, 임신 및 건유 단계의 소들이 동시에 사육되기 때문에 단계별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번식장애는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젖소는 발급장애, 유방염, 후산정체, 불규칙적인 소음, 하계 고온 등의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각종 번식호르몬이 저해되거나 지연되어 번식생리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발급장애를 가지고 있는 젖소는 승가행동이 적거나 발급이 아파서 발정이 오지 않은 데도 다른 소의 승가를 허용하도록 서 있기 때문에 발정관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기배사멸과 같은 형태로 번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공수정 시점부터 수태될 때까지 사이에서 유방염에 걸리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기배사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유초기에는 차기의 번식을 염두에 두고 착유관리를 표준화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수태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특정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3회째 수정을 실시하였으나 임신진단 결과 임신이 되지 않았거나, 재발정 예정일을 전후하여 수태가 되지 않고 다시 발정이 온 개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인공수정을 시키기 보다는 정확하게 검진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장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또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표로 만들어 꼼꼼하게 점검한 뒤 번식기록을 수시로 활용하여 검진이나 처리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료작물 관리

옥수수 파종적기 4월 25일경, 5월 20일 전에 마쳐야

여름철 중요 사료작물인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종자 파종 계획을 수립한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파종적기는 4월 25일경이며, 파종적기에서 늦어지면 수량이 점차 감소하므로 1모작은 늦어도 5월 5일까지, 2모작은 5월 20일까지 파종을 마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이 파종시기가 중요한 것은 옥수수 재배시 발생할 수 있는 옥수수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이 4월 23일~5월 초 파종에서 가장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나 청보리와 같은 월동사료작물을 수확하고 옥수수를 파종하는 2모작 재배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파종을 해야 하며 늦어도 5월 20일 전에 마쳐야 생산성 감소를 줄이고 검은줄오갈병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